

불자 세상보기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교수

재물은 적어도 달리고, 많아도 화를 부르는가 보다. 요즘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삼성가 형제들의 상속재산 다툼을 보고 문득 떠올려 본 단상이다. 삼성가라면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제일 가는 부자 집안이 아니던가. 그런 가문의 형제자매들이 수십 년 전의 일을 다시 거론하면서 상호 맞고소를 했다고 하니, 지켜보는 우리들로서는 흥미진진한? 구경거리 하나가 생긴 셈이다.

이와 관련된 저간의 사정을 잘 모르긴 하나 형과 누나 쪽에서는 부친의 차명 주식을 동생이 몰래 착복했다고 주장하고 동생 쪽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된 문제를 이제 와서 들먹이는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는 입장인 것 같다. 그래서인지 피고소인이 된 이견희 회장은 '지금 갈아서는 한 톨도 줄 생각이 없다' 라는, 속마음을 그대로 내뽐고 말았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들 사이에 분쟁의 씨앗이 된 돈의 액수는 약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이 형제자매들이 주고받는 연사가 이른바 막말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서로 상대방을 향해 '수준이하의 자연인'이라거나 '어린애 같은 발인'이라고 공격하는가 하면, 한결을 더 나아가 '감히 나보고 건희, 건희라고 할만한 상대가 아니다. (중략) 선천으로부터 자식자격을 박탈당한 뒤 집안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퇴출된 양반'이라는 식의 가시 돋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여론을 의식해서인가, 이견희 회장은 유령출장길에 오르면서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 죄송하다는 사과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간에 보여준 삼성가의 행동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최고경영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아무튼 여간 부끄럽고 보기 흉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은 7-80대 노인 형제들이 바로 그 때문에 막말을 주고받으면서 싸우는 광경은 일반국민들의 정신건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속물들의 이야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여기서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와 같은 의식의 소유자들에게 한동안 사회적 화두가 되었던 '동반성장'이나 '이익공유제' 같은 말이 과연 어떻게 들렸을지 자못 궁금하다.

주지하다시피 불교 전통에서는 탐진

'노블레스 오블리주' 찾기 힘들어

탐진치 경계하면 분쟁 없어져

공생의 '호모 심비우스' 새기자

치, 즉 삼독심을 특히 경계하라고 가르친다. 삼독심이란 지나친 욕심과 분별없는 성냄, 그리고 세상살이의 이치를 터득하지 못한 어리석은 마음을 일컫는다. 우리가 보기에 삼성가 형제들의 재산싸움은 양측의 과도한 재물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상대방 헐뜯기 및 견전하고 상식적인 삶의 원리에 대한 무지 등이 한데 어우러진 한편의 희극이자 동시에 비극인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사회의 품격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

닐 수 없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윤리적 자화상이 이렇게까지 일그러진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하지만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들과 똑같은 진흙탕 싸움꾼들이 아닌지 겸허하게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은 인간들을 자꾸만 그렇게 살도록 내몰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호모 심비우스', 다시 말해 공생하고 협력하는 인간을 제안하는 어느 유명 진화생물학자의 말에 관심을 갖게 된다. 내용인즉슨 저 혼자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곧 언젠가 다 같이 죽자는 말과 사실상 동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나친 욕심을 멀리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공존공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진화생물학의 윤리적 함의는 상호 수렴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리라. 익히 알고 있듯이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소중한 가족의 가치를 거듭 일깨우는 가정의 달 5월에 새삼스럽지만 우리 모두 '호모 심비우스'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 볼 것을 감히 권유 드린다.

社說

MB정부, 끝까지 종교편향인가

임기 말 이명박 정부가 또 다시 자중수를 댔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용산참사와 쌍용차 관련 구속자들에게 대한 부처님 오신날 특별 사면을 요청한 지 하루도 안돼 청와대가 나서 "사면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조계종의 사면 요청은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에도 있었으며, 공문에도 '현 정부에서의 마지막 부처님오신날 사면'임을 간곡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것이다.

더욱 더 문제인 것은 특별사면의 기준이다. 현 정부 들어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2009, 2011년 성탄절 특별 사면만 두 번에 걸쳐 이뤄졌고, 2010년에는 성탄절 가석방으로 829명이 혜택을 받았다. 반면 이전 노무현 정부에는 2003, 2004, 2005년 세 번에 걸쳐 부처님오

신날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참으로 대조적인 결과다.

두 성인이 세상에 오신 날 모두 자비와 관용, 사랑과 용서가 함께 하는 축일(祝日)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마저도 종교편향적 행정으로 처리했다. 임기 초 타율랐던 민중들의 촛불이 다시 타오르고 있는 것도 이런 안일한 행정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있는 곳은 현 정부뿐이다.

현재 조계종은 사태를 파악하고, 종교편향 요소가 있는 지 살피는 등 후속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이런 종교편향적인 행정을 하는 동안 불교계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자문 안할 수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태 처리는 이미 할 만큼 해왔다. 종교편향적 행정에 대한 종교계 차원의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불교의 독거 노인에 대한 관심은?

독거노인이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25.3%를 차지한다고 한다. 1인 가구 비중은 2035년엔 34.3%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65세 이상 홀몸 노인은 올해 119만명에서 2035년 343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독거노인 대부분은 경제적 궁핍과 질병이 시달리며 힘들게 살아간다.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76.6%로 전체 가구 빈곤율 14.6%의 다섯 배를 넘는다. 홀몸 노인 41%는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고, 88%는 평균 두 가지 넘는 질병을 앓고 있다.

바야흐로 독거노인이 넘쳐나는 시대가 왔다. 이에 이제 우리 불교도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한다.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뒷짐만 짊고 있어서는 안된다. 복지관 뿐만 아니라 사찰에도 독거노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법회를 만들어야 한다. 독

거노인들이 언제나 마음편히 와서 쉴 수 있는 마음의 위안처와 쉼터로 절을 꾸며야 한다고 한다. 1인 가구 비중은 2035년엔 34.3%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65세 이상 홀몸 노인은 올해 119만명에서 2035년 343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참선 등을 위한 선심리 프로그램도 만든다면 고독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인들의 우울증 치료에도 효과가 클 것이다. 노인들을 위한 차별화된 법회도 개설된다면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듯 싶다.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홀몸 노인들을 우리 불교가 따뜻이 꺼안자.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큰일도 아니다. 무너지는 가족의 가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국가와 사회, 가정이 짐을 나눠줘야 한다. 거기에 우리 사찰도 한 몫을 하길 5월 가정의 달에 간곡히 희망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현대불교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칼럼



자운스님 천태종총무원 총무과장

"공황에서부터 환영인파가 쭉 늘어서 박수를 치는 등 환영 열기가 엄청났다." "특급호텔에 1인 1실을 주는 등 대접 또한 기대이상이었다.", "정부 차원에서 세계불교포럼을 지원, 육성하려는 의도가 눈에 확연히 보였다." 앞서 세계불교포럼을 다녀온 이들에게 들었던 말이다.

이 대회에 처음 참석할 필자는 이런 이유로 기대 반, 설렘 반 흥풍으로 즐겼었다. 하지만 정작 대회가 열렸을 뿐 지나친 기대 때문인지 실망이 먼저 다가왔다. 환영만찬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치러진 개막식과 분과토론회는 '세계불교의 화합'이란 주제와는 달리 '중국'과 '홍콩'을 위한 행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중국불교협회, 홍콩불교연합회, 중화종교문화교

류협회 등 3곳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다 보니 주최 측 측사가 길어져 그런 느낌은 더욱 강했다.

한국불교를 확대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한국 측 대표단장인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목각기로 불참했고, 테고종총무원장 인공 스님도 불참해 주최 측 입장에서는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단상의 자리 배치나 축사의 순서 등은 한국 측이 불만을 가질 만 했다. 무엇보다 한국어 동시통역은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북한 식 통역이라 (통역이라 말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의 나열에 불과했다.

폐막식 때 발표된 의제선언문 역시 주최 측 의의로 정해 발표했는데, 폐막식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언문은 배포되지 않았다.

반면 중국 정부 차원에서 불교를 육성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그것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일지라도 분명 부러울 광경이었다. 판례라마를 내세운 점에서 이미 그 속내가 드러나 중국 의 패권주의에 대한 비난 여론도 만만

찮지만, 끊임없이 종교편향에 골머리를 싸매야하는 한국불교계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했다.(부러울 뿐 본받지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불교 대표단이 반성할 점도 없지 않다. 특히 주최 측이 숙소 로비에서 금강경이 담긴 차(茶) 박스를 선물로 나누

한국불교 확대 인상 지울 수 없어

의제선언문 폐막 후도 배포 안돼

WFB 한국대회 '역지사지' 필요

줬을 때 일행 중 한 명이 차만 가져가고, 차 박스와 함께 금강경을 버린 행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다. 큰 부피가 부담스러웠더라도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해신 안 될 행위였다. 무엇보다 경전을 버린 행위는 승복을 입은 불제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부끄러운 일이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스승이 있게 마련이다. 그 중 선한 자를 본받고,

선하지 못한 자를 보고 내 잘못을 고쳐야 한다"는 옛 말이 있다. 제3차 세계불교포럼을 다녀온 한국불교 대표단 역시 이런 마음이어야 한다. "중국불교를 세계불교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는 그들의 욕심은 본받되, '하이사상(華夷思想)'에서 비롯된 '내가 최고'라는 오만은 우리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내달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제 26차 세계불교도우의회(WFB) 한국대회를 준비 중인 조계종과 조계종중앙신도회는 이번 세계불교포럼에 실무팀을 파견했던 만큼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이 대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경제력 측면에서 중국은 이미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앞서 있다. 수천 억 원을 들여 영산범궁(중국은 폐막식에서 영산범궁을 세계불교포럼 본궁으로 지정했다)을 짓고, 수백 억 원에 달하는 행사비용을 부담하는 물량공세를 우리가 흉내 낼 필요는 없다. 하심과 자비를 바탕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체계화할 수만 있다면 덩치만 큰 중국불교를 따돌리는 일은 어렵지 않다.

제3차 세계불교포럼 다녀와서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봐야 얻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글쓴이 : 해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정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수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케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당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불자의 금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계약·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명 연락처
부산지사 이재진 051)632-0064 / 011-488-7745
대구지사 손문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